

3-4 m級 大型 望遠鏡建設計劃의 提案

金斗煥

前 天文宇宙科學研究所

최근에 와서 전자공학을 비롯해 반도체 기술, 센서기술, 초정밀광학기술, 컴퓨터제어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첨단관측장치인 大型望遠鏡(구경 6-10m급)의 개발·제작이 G7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科學先進國들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각국의 천문학자들은 최첨단 신기술로 제작된 大型望遠鏡으로 宇宙探究를 전개하면서 天文學의 새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도 수준 높은 천문연구활동을 통해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천문관측 연구분야의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大型望遠鏡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는 IMF통제하에 놓여 있고, 경제난과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망원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정보에 건설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IMF시대의 2-3년 동안은 大型望遠鏡計劃수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조사연구를 충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IMF시대가 끝나고 경제가 안정되어가면,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반 검토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정부를 설득하는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형 大型望遠鏡計劃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내실정(국가재정, 관측날씨, 관측천문인구, 공업기술력 등)에 맞는 3-4m급 分光專用望遠鏡을 보현산천문대에 설치하여 천문학계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 정부, 기업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5-7년 사업기간으로 예산 400억원, 전문인력 50명의 사업계획.
- 국내기업체(일부해외기업체)에 개발·제작하게 함으로써 관련첨단기술을 축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차 이를 기반으로 국제거대망원경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